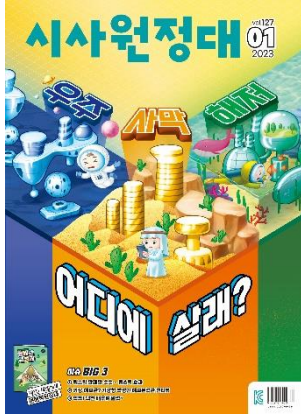


시사원정대 NIE 2023-1월호



Contents

교재 들여다보기

1주 수업 계획표

1주 수업 내용

2주 수업 계획표

2주 수업 내용

3주 수업 계획표

3주 수업 내용

4주 수업 계획표

4주 수업 내용

참고자료

교재 들여다보기

1) 시사탐험

최근 가장 뜨거웠던 뉴스를 해설과 함께 소개하는 코너.

최근 이슈가 됐던 뉴스, 국제 이슈, 꼭 알아야 하는 시사 용어 등을 다룹니다. 토론이나 논술 수업의 자료로 적합한 기사가 많습니다.

2) 경제탐험

최신 경제 뉴스와 경제 키워드 및 주목받는 슈퍼리치를 둘러싼 뉴스를 소개하는 코너.

영화드라마웹툰 등을 활용한 경제 지식을 쌓으며 돈에 대한 감각과 이해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3) IT 융합탐험

최근 IT(정보기술) 분야에서 화제가 되는 첨단 기술과 환경 관련 뉴스를 소개하는 코너.

4차 산업혁명시대와 필환경시대에 걸맞은 태도를 기를 수 있습니다.

4) 문화탐험

창의성과 감수성을 길러주는 코너. 순수예술부터 엔터테인먼트, 메타버스에서의 체험 등 폭넓은 기사를 소개합니다. 매달 한국학교사서협회 소속 현직 사서선생님의 추천도서를 읽고 토론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5) 문해력원정대(별책부록)

글을 읽고 문맥을 파악하는 능력인 문해력을 기르는 방법을 콕콕 짚어주는 특별부록으로 2023년 1월과 8월 발행됩니다. 문해력을 기르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전문가의 조언과 독서법을 소개하고 학년별로 읽기 좋은 추천도서도 소개합니다.

3주 수업 계획표

단원	시사원정대 NIE 1월호 3주 (90분)		
학습 목표	만 나이와 연 나이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본다. 기상 예보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알아본다. BCI기술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다양한 연구 사례를 살펴본다.		
활동 초점	- 만 나이와 연 나이에 대해 알아보고, 만 나이로 변화하는 사회를 예측한다. - 기상 예보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이해하고 기후 변화에 대해 알아본다. - BCI기술이 적용된 사례와 기대효과를 살펴본다.		
구분	중심 활동과 내용	교사 활동 초점	분
열기	- 지난 주 있었던 뉴스를 돌아본다. (베스트 뉴스를 선정해서 이야기 나누기) 스피드퀴즈로 어휘테스트	- 기회는 공평하게 준다. 문제를 간추려 고급 어휘만 추려서 테스트한다.	5
펼치기	- 50 시사네컷3 - 새해엔 떡국 먹어도 나이 안 먹는다?	- 만 나이 - 나이 셈법	25
	- 34~37 이달의 인물 - 기상청 재해기상대응팀 박정민 예보분석관	- 기후와 예보 - 진로	25
	- 82~85 과학지식배틀 - 내 생각대로 날고 뺨고	- BCI 기술의 뜻과 이 기술을 활용한 연구	30
마무리	- 펼치기 주제와 관련된 창의활동을 한다. - 다음 주 수업 예고	- 나의 생일을 기준으로 만 나이, 연 나이, 세는 나이를 계산해 보고 만 나이를 기본으로 삼게 된 배경을 생각해 보자.	5

[30분 수업 시, 활용 방법]

단원	시사원정대 NIE 1월호 3주		
학습 목표	만 나이와 연 나이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본다. 기상 예보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알아본다.		
활동 초점	- 만 나이와 연 나이에 대해 알아보고, 만 나이로 변화하는 사회를 예측한다. - 기상 예보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이해하고 기후 변화에 대해 알아본다.		
구분	중심 활동과 내용	교사 활동 초점	분
열기	- 지난 주 있었던 뉴스를 돌아본다. (베스트 뉴스를 선정해서 이야기 나누기) 스피드퀴즈로 어휘테스트	- 기회는 공평하게 준다. 문제를 간추려 고급 어휘만 추려서 테스트한다.	5
펼치기	- 50 시사네컷3 - 새해엔 떡국 먹어도 나이 안 먹는다?	- 만 나이 - 나이 셈법	20
	- 34~37 이달의 인물 - 기상청 재해기상대응팀 박정민 예보분석관	- 기후와 예보 - 진로	10
마무리	- 다음 주 수업 예고 - 신문 스크랩하기(스캐치북활용) 활동 안내	- 나의 생일을 기준으로 만 나이, 연 나이, 세는 나이를 계산해 보고 만 나이를 기본으로 삼게 된 배경을 생각해 보자.	5

시사네컷3

새해엔 떡국 먹어도 나이 안 먹는다?

<어휘 UP>

간주: 상태, 모양, 성질 따위가 그와 같다고 봄. 또는 그렇다고 여김.

셈법: 계산하는 방법.

혼란: 뒤죽박죽이 되어 어지럽고 질서가 없음.

개정: 주로 문서의 내용 따위를 고쳐 바르게 함.

<발문>

1. 만 나이와 세는 나이의 차이점을 정리해서 발표해 보자.
2. 만 나이로 통일했을 때 사회에서 나타나는 변화 3가지를 적어보자.

<교사 참고자료>

‘만 나이’로 통일에...94년생 “내년에도 20대, 어려지니 좋아요”

“내년에도 ‘20 대’라고 생각하니 왠지 모르게 힘이 나네요.”

1994년 4월에 태어난 의사 한상윤 씨는 내년 6월부터 국내 모든 행정에 ‘만(滿) 나이’가 적용된다는 소식을 듣고 반가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세는나이’(한국식 나이)로는 내년에도 30대가 되는데 ‘만 나이’를 적용하면 20대로 1년 반가량 더 지낼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사법·행정 분야에선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선 ‘세는나이’, 일부에선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는 ‘연 나이’를 사용하는 등 혼선이 적지 않았다.

그런데 국회에서 이달 8일 민법 개정안과 행정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내년 6월

부터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계약·법령에 표시된 나이는 모두 ‘만 나이’로 간주하게 됐다. 국제적으로 ‘만 나이’가 일반적이라는 점도 법 통과 의 근거가 됐다.

나이 셈법이 바뀐다는 소식에 시민 상당수는 ‘한두 살씩 어렵진다’며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특히 한 씨처럼 출생 연도 끝자리가 ‘4’인 시민들은 반가움을 드러냈다.

1974년생 자영업자 지모 씨는 “40대와 50대가 주는 부담감은 다르다”며 “인생에서 1년을 한 번 더 사는 것 같아 벌써부터 내년이 기대된다”고 반겼다.

하지만 새 나이 계산법에 따라 호칭을 새로 정리해야 하는 등 혼란스러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대학생 한상현 씨(22)는 “한 살 차이라도 형, 누나라고 부르는 게 익숙했는데 앞으로는 생일에 따라 나이가 달라질 수 있어 관계가 어색해질 것 같다”며 “한동안은 ‘세는나이’도 함께 써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도 고민이다. 내년엔 나이를 먹지 않는다는 걸 어린 자녀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난감하다는 것이다. 2019년생 자녀를 둔 유모 씨(31)는 “내년에 다섯 살이 된다고 좋아하던 아들에게 네 살을 한 번 더 해야 한다고 하니 아이가 꽤 속상해했다”고 말했다.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최모 씨(35)는 “저학년과 미취학 아이들은 어려지기 싫어하는 경우가 많다. 나이가 바뀌는 이유를 설명하는 데 진땀을 뺐다”고 했다.

앞서 법제처가 올 9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만 나이 통일’에 관한 국민의견 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6394명 중 81.6%(5216명)가 ‘만 나이 통일을 위한 법 개정이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고 답했다.

[동아일보 2022-12-12]

이달의 인물

기상청 재해기상대응팀 박정민 예보분석관

<어휘 UP>

영향: 어떤 사물의 효과나 작용이 다른 것에 미치는 일.

예보: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알림.

예측: 미리 헤아려 짐작함.

정밀: 아주 정교하고 치밀하여 빈틈이 없고 자세함.

재해: 재앙으로 말미암아 받는 피해. 지진, 태풍, 홍수, 가뭄, 해일, 화재, 전염병 따위에 의하여 받게 되는 피해.

직결: 사이에 다른 것이 개입되지 않고 직접 연결됨.

현상: 인간이 지각할 수 있는, 사물의 모양과 상태.

<발문>

1. 기상청이 운영하는 날씨누리 홈페이지를 참고해 오늘의 날씨를 알아보자.
2.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를 늦출 수 있는 실천 방법을 조사해 3가지를 발표해 보자.

<교사 참고자료>

한국 폭우, 유럽 폭염 '기후몸살'... 올 자연재해 사망 전세계 4300 명

“아이고, 예년보다 두세 배는 더 더워요. 올해는 물까지 부족하니 정말 덥네요.”

9 일(현지 시간) 프랑스 파리 루브르박물관 앞에서 만난 디디에 루비트 씨는 메마른 박물관 앞 분수대를 바라보며 말했다. 폭염과 가뭄이 더 심한 남부 툴루즈에 거주하는 그는 “수확을 앞두고 물이 너무 부족하다. 이젠 가뭄에 강한 다른 품종을 기르는 데 익숙해져야 할 것 같다”고 우려했다.

기자가 파리 도심 콩코르드 광장 아스팔트 표면 온도를 직접 재보니 섭씨 40 도를 훌쩍 넘었다. 아스팔트 열기에 땀별이 피부를 파고들 듯 다가왔다. 팔레루아알에서 루브르박물관으로 향하는 도보 10 분 거리를 따라 있는 대형 분수 3 곳 중 2 곳이 완전히 메말랐다. 당국이 가뭄경보 1 단계를 발동해 5 일부터 주요 분수대 급수가 중단됐다. 파리는 세차 등 물 사용을 최대한 자제하라고 발표했다.

○ “올해 7월 지구 기온 역대 최고 수준”

한국이 폭우로 고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등 유럽 전역은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에 시달리고 있다. 세계기상기구(WMO)는 “올해가 지구의 7월 기온이 가장 높았던 3개 해 중 하나로 기록됐다”고 9일 밝혔다. 나머지는 2016년과 2019년으로 폭염 수준이 거의 비슷했다. 세계 곳곳이 기상이변 혼란에 빠지며 자연재해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늘고, 작황 부진 탓에 식량난이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영국 기상청은 9일 잉글랜드 남부, 웨일스 동부 지역에 11일부터 나흘간 폭염 황색경보를 내렸다. 황색경보는 취약한 사람들의 건강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수준이다. 비가 자주 와 레인코트로 유명한 잉글랜드 지방에선 지난달이 1935년 이래 가장 건조한 7월로 기록됐다. 영국 최대 수도회사인 템스워터는 물 사용 임시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

이탈리아에서는 지난해 12월부터 비가 잘 오질 않아 북부 지역이 심각한 가뭄을 겪고 있다. 올여름에는 주요 하천인 포강 곳곳이 말라버렸다. 9일 영국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알프스 빙하가 폭염으로 빠르게 녹아내리며 반세기 넘게 묻혀 있던 유골 두 구와 비행기 잔해 등이 발견됐다.

○ 日 폭우·폭염 ‘한 나라 두 날씨’

일본은 각기 다른 지역에서 폭염과 폭우가 동시에 나타나 ‘한 나라 두 날씨’를 보이고 있다. 9일 NHK에 따르면 일본 기상청은 이날까지 35도 이상 폭염이 14일간 이어졌다고 밝혔다. 1995년과 2010년 35도 이상 폭염이 13일간 이어졌던 기록을 넘어섰다. 반면 아오모리현과 아키타현 등 일본 동북부 일부 지역의 반나절 강우량은

평년 8월 한 달 치 강우량에 달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데스밸리에 5 일 1 년 치 강수량의 75%가 하루 만에 쏟아졌다. 이날 기온은 섭씨 56.7 도로 역대 가장 높았다. 일리노이주에는 1, 2 일 8 월 한 달 치 강수량이 모두 내렸다. 호주는 2~4 월 브리즈번을 중심으로 인근 지역에 3 일 새 676.8mm의 비가 내렸다. 1974년 이후 48년 만에 최악의 홍수가 발생했다.

○ 세계 상반기 자연재해 손실 85조 원

기후재앙으로 전 세계에서 경제적 손실이 불어나고 있다. 세계 최대 재보험사인 독일 뮌헨재보험(Munich Re)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세계가 자연재해로 입은 손실은 650억 달러(약 85조 1800억 원)에 달했다.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자는 약 4300명으로 작년 동기의 1.9배였다. 토르스텐 예보레크 뮌헨재보험 이사는 "상반기 자연재해는 기후 관련 재앙이 지배적"이라고 했다. 유엔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폭염이나 폭우, 가뭄 등 기후 재난이 잦아지고 그 강도도 세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럽연합(EU)은 이상 고온으로 올해 곡물 수확량이 작년보다 5% 감소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프랑스의 옥수수 수확량은 지난해 대비 19% 줄어든 126만 6000t으로 추정된다.

[동아일보 2022-08-11]

과학지식배틀

내 생각대로 날고 뻗고

<어휘 UP>

통제: 일정한 방침이나 목적에 따라 행위를 제한하거나 제약함.

뇌파: 뇌의 활동에 의해 일어나는 전류.

해독: 어려운 문구 등을 읽어 이해하거나 해석함.

<발문>

1. BCI 기술을 활용해 개발하고 싶은 기술을 상상해 그림으로 표현해 보자.
2. 모든 것이 생각대로 움직인다면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을지 이야기해 보자.

<교사 참고자료>

머스크 “원숭이 뇌에 칩 심어... 비디오 게임하게 하겠다”

미국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가 소셜 미디어를 통해 가상화폐 비트코인에 대한 지지의사를 밝혔다. 머스크는 오디오 전용 소셜 미디어 ‘클럽하우스’에서 “현 시점에서 비트코인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나는 비트코인 지지자”라고 밝혔다고 1일 블룸버그 등이 보도했다.

머스크는 과거 친구로부터 비트코인에 대해 소개를 받았으며, “8년 전 비트코인을 샀으면 좋았을 것이다. 향후 비트코인은 금융가 사람들에게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지난달 28일에는 머스크가 트위터 계정 자기 소개란을 ‘#비트코인’으로 변경해 가격이 치솟기도 했다. 다만 이날 머스크의 발언은 비트코인 시세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또 이날 ‘클럽하우스’에 머스크는 자신의 다른 업체 ‘뉴럴링크’가 원숭이 뇌에 컴퓨터 칩을 이식했다고 밝혔다. 뉴럴링크는 인간의 두뇌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인터페이스를

개발하는 스타트업으로, 지난해 8월 칩이 이식된 돼지의 모습을 공개한 바 있다. 당시 머스크는 이 칩이 동전 사이즈의 무선 센서로 “머리 속에 심어지는 핏비트(fitbit.이용자의 운동량이나 심장박동수 등을 측정해 데이터화하는 웨어러블 기기)와 같다”고 설명했다.

머스크는 “원숭이 실험에서도 꽤 많은 진전을 얻었다”며 “현재 우리의 관심사는 뇌에 칩을 심은 원숭이들이 서로 ‘마인드 풍’을 할 수 있을지 여부다. 만약 실현되면 정말 멋진 것”이라고 했다. ‘마인드 풍’은 손으로 조작하지 않고 생각만으로 비디오 게임 속에서 공을 주고받는 탁구 게임을 말한다. 이 게임을 두 마리 원숭이가 동시에 조작할 수 있을지를 실험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이러한 실험의 최종 목표는 사람의 뇌에 칩을 심는 것이다. 머스크는 2017년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뉴럴링크의 존재를 공개하며, 뇌와 컴퓨터를 연결해 인간의 두뇌 능력을 끌어 올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뇌와 척추 부상을 해결하거나, 치매를 치료하는 데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머스크는 더 나아가 “인식을 저장해서 다른 신체나 로봇으로 이식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대해 과학자들은 실현 불가능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동아일보 2021-02-02]